

## “신들을 섬기고”

### ❖ 사사기 10:6-9

-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 8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찢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은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던 45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신들의 종류는 일곱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충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닮치는 대로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자리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도 부르는데, 암몬 자손은 길르앗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사기는 시간 흐름에 관계 없이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야일이 죽은 후에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야일이 길르앗의 30개 성읍을 소유한 기사와 길르앗이 암몬 족속에게 고통을 당한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일은 사사로씨의 사명을 감당하기 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만 관심을 둔 무능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 우상들 중에는 모압, 암몬, 블레셋과 같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따라서 섬긴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독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대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

사도행전 19:23-29를 읽겠습니다.

❖ 사도행전 19:23-29

- 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시민을 선동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 극장으로 끌고갔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모인 에베소 시민들은 두 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신의 딸, 아르테미스를 의미합니다. 그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 바울이 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서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야 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시민을 선동한 이유,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메드리오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전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도를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베소 시민들이 그 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엄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우상을 팔 수 없게 되어, 수입이 끊어질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데메드리오가 고용한 직원들, 우상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 아데미 신전을 관리하던 성직자 등 우상과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바울을 쫓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와 사도행전은 시기적으로 천 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로써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종교와 관련된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 신전에서 제사와 축제를 주관하던 성직자들, 제물을 파는 사람들, 축제에 사용되는 도구를 판매하는 사람들, 축제 때에 동원되는 가수나 배우 등 종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교였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다신교적인 종교 활동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

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통치에 신적인 권위를 더할 목적으로도 종교 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신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정해진 절기 때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 외에는 다른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로 인한 경제 침체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 환영 받지 못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우상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을 이용해서 얻게될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는 욕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 재물이라는 우상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돈에 대해 관심 없는 척,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척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 경험상 돈에 관심 없는 ‘척’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정말 돈에 관심도 없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물질에 초월해서 사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매일 돈 생각 하는 가증스러운 인간을 아주 자주 봅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실거예요. 거울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신분이든 외모든 사람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이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합니다. 결국 사람이 섬기는 진짜 우상은 다른 신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바알이든 아데미든 돈이든, 그것을 수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우상 숭배의 본질.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과도한 사치와 향락은 죄악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좋은 것 입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이 없어도 조건이 좋은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본이 있으면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신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느냐 무관한 직업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안식일과 십일조**

출애굽기 16:22-30입니다.

## ❖ 출애굽기 16:22-30

-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 26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이었지요. 하루만 지나도 상해서 벌레가 생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에 열심히 이틀치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었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아무 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어도 이스라엘의 주인되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채우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안식일에만 상하지 않는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10-12입니다.

## ❖ 말라기 3:10-12

- 10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1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때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 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 때문에 성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성전 창고에 들이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 창고에 복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온갖 병충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된 민족이라는 칭찬을 얻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아둔 재물이나 양식이 없어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평소에 주일 성수나 십일조에 대해 별 말이 없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가요. 안심하십시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이었습니다. 직종이나 직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주일에도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일조는 성도의 현금 생활에 좋은 기준임에는 분명하지만 의무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과 그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여겨지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훌륭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주일에도 일하셔야 한다면 요일에 구매받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정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십 분의 일을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있다면 이십 분의 일이든 백 분의 일이든, 하나님과 약속하여 정한 분량을 드리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한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셨다면 철수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로 얻는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서 잃어버린 돈을 내 몫으로 챙겨가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투자해서 가치를 올려 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가상 화폐 투자는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합법적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박이 합당한 경제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활동을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려 위험이 있다면 아무리 큰 만족과 이익을 보장해주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신앙의 여러 양상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형편이 안 되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것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린 것은 아니고 그분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저렴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서 후회했지요. ‘착한 척 하기도 힘들다’면서. 그런데 며칠 후에 이사를 위해서 저희가 살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파트, 저희 평수만 2년 사이에 몇 천만원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저는 그전까지 베푸는 삶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것 챙기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갚아주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요. ‘그때 그냥 우연이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베푸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하나님께서 잘 모아두셨다가 한 방에 터뜨릴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베풀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베푸는 삶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겨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아직은 삶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십일조를 잘 드렸더니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보다 물질에 매여서 인색하고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 헌신이 훨씬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목적으로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 영원한 분깃

### ❖ 시편 73:25-26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분깃”은 유업으로 물려받을 나의 몫,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보상을 뜻합니다. 다른 보상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 바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헌신에 즉각적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아무 것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이 갚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저에게 꼬박 꼬박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다면 저는 오직 그 보상만을 바라며 헌신하려 했을 것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시들어도,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분깃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더 큰 소원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생각해볼 질문들

1.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나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2.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3.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